



07-31 (통권 158호)
2007.8.3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내 제조업, 경기 소폭 개선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상

경영 노트

- 스타벅스의 지속가능경영

사회 트렌드

- 국내에 미국 대입 컨설팅 바람 불어
- 스마트 하이웨이

저널 브리프

- 바젤II 시행 따른 급격한 중기 대출 축소 방지

洗心錄

- 균형의 리더십

□ 국내 제조업, 경기 소폭 개선

- 한국은행이 2,929개 업체들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중 기업경기조사(BSI)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기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7월 업황BSI(87)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7월이 계절적 비수기임을 반영하여 업황BSI가 일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5~8p 낮은 점을 고려하면 업황 개선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문별로는 대기업(94→97)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83→81)은 하락하였고, 수출기업(89→87)은 하락한 반면 내수기업(86)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8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도 전월 대비 3p 상승한 89를 나타내어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상

- 경기과열 억제와 자산거품 방지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잇따른 긴축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8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12%로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4년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인 11.9%에 달하고 6월 중 물가상승률도 지난 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4.4%를 기록하여 중국경제의 과열 우려가 한층 높은 상황임
 - 그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폐지 등의 긴축정책을 공표한 바 있음

- 하지만 무역흑자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일련의 긴축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하고 있음

□ 스타벅스의 지속가능경영

- (개요) 커피라는 평범한 상품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 스타벅스의 성장 뒤에는 스타벅스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실천 노력이 있음
 -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의 작은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에 1만 3,728개의 점포를 둔 세계 최대 원두커피 전문점으로 성장함
 - 스타벅스는 커피원두 구매절차의 윤리와 투명성 강화, 농감 및 파트너* 간 지식 공유를 통해 커피의 문화산업화를 이끌었음
- (지속가능경영의 요체) 스타벅스의 지속가능경영은 고품질 원두 생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품질 원두생산) 고객이 원하는 ‘최고급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기준을 충족한 농가의 원두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구매
⇒ 고품질 원두를 생산한 농가는 높은 값을 받아서 좋고 스타벅스는 고품질 커피를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거래’가 성립됨
 - (윤리경영) 농가에게는 정당한 원두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투명하게 제시하고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함
 - (사회책임경영) 개도국의 폐허가 된 외딴 커피 농가 일대를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함
 - (환경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열정을 가지고 지난해 북미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20%를 상쇄하기 위하여 ‘풍력 재생 에너지 증권’을 구매함 (구매액 기준으로 참여 기업 중 6위)
- (시사점) 기업은 본연의 경쟁력에 충실하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준수, 사회적 책임 완수, 환경보호에 힘써야 지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음
 - 스타벅스는 기본 경쟁력인 ‘고객에게 고품질의 커피 공급’을 실현하면서,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미래건설’에도 동참하고 있음
 - 이같은 노력이 고객과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지속경영의 방법임

*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종업원(employee)이란 말 대신 동업자(partner)라는 의미의 파트너로 지칭하고 존중함

□ 국내에 미국 대입 컨설팅 바람 불어

- **지난 해 미국 유학생이 9만 3,72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유학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에 미국 대입 컨설팅 바람이 불고 있음**
 - 연초 국내에 진출한 한 미국계 교육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강의 수강료는 하루 3시간씩 3일하는 데 총 300만 원이라 하는데, 하버드대의 전·현직 교수가 강의를 함
- **이러한 족집게성 과외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이에 따라 그 비용도 천차만별임**
 - 1년짜리 ‘일괄 컨설팅’은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나 AP(대학과목선이수제) 시험 대비 전략부터 과외활동·인턴십·봉사활동 등 美 대입에 필요한 모든 포트폴리오 구성을 책임짐
 - 대입 원서 에세이를 첨삭 지도해 주는 ‘라이팅(writing) 컨설팅’은 건당 100만 원부터 시작하며 5개 대학 패키지는 300만 원 선임
 - ‘합격될 때까지 무한대 컨설팅’으로 1,000만 원짜리 상품을 내놓은 곳도 있음
 - 이외에도 미국의 하위권 대학에서 명문대로 편입을 상담해 주는 ‘브리징(Bridging) 프로그램’, 미 대입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턴십 경력을 위해 조기 유학생에게 국내 일자리를 알선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상품도 다양해짐

□ 스마트 하이웨이

- **2016년이면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60km에 이르는 한국형 차세대 고속도로 ‘스마트 하이웨이’가 선보일 전망이다**
 - 스마트 하이웨이는 정보기술(IT)과 첨단 도로건설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차 안에서 도로 상황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소음과 교통 체증 없이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말함
 -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스마트 하이웨이는 국내 거점 도시간 이동성을 향상시켜 물류비 절감과 국토균형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 건설 기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면 외국시장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임

□ 바젤II 시행 따른 급격한 중기 대출 축소 방지*

- (현황) 지속적인 증시 호조와 함께 시중 유동성이 급팽창함에 따라 한국 은행과 정부는 나란히 국내외 유동성 공급을 규제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CD 등 단기성 자금을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를 4.5%에서 4.75%로 인상함
 - 정부는 외화 차입에 대한 외국 은행 지점의 인정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국내 은행들의 외화 대출 용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중소기업 대출 부작용) 최근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부실화가 나타날 경우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은행의 산업별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올 1분기 동안 늘어난 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48%가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 나타나 중소기업 대출 절반 가량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해당됨
 - 부동산 침체로 매수세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전망) 2008년 바젤II 시행으로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은행의 대출형태 뿐 아니라 채권, 부동산, 주식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됨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임
 - 위험자산일 경우, 엄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채권을 발행하게 되므로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이 글은 『매경ECONOMY』(2007.8.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균형의 리더십

기업의 성과와 조직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한 저명한 경영학자인 코터(John Kotter)와 헤스켓(James Heskett)에 따르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대체로 고객, 주주, 종업원을 골고루 중시하고 있으며, 반면에 낮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이러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영자일수록 이해관계자 다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일수록 경영자는 자기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 또는 종업원이나 주주와 같이 일부의 이해자 집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경영자들은 그 동안의 학습 결과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중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회사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주주(투자자)만을 너무 중시하면 경영자가 단기 실적에만 신경을 써 회사의 미래 성장성은 약화된다.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경우에는 종업원(퇴직자 및 가족 포함)을 지나치게 중시해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단적인 예이다.

종업원이나 주주와 같은 내부자의 요구나 희망 사항을 충족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기업들이 점차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같은 외부자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요즘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회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여기에 환경적 요인까지 가미하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하여 균형된 가치를 창출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바로 ‘균형의 리더십’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다면, 높은 성과와 강한 생존력을 갖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용기가 勝利者를, 조화가 無敗者를 만든다

가치미르 드라뷔뉴(1793~1843) : 프랑스의 시인, 극작가